

LA 다저스, 7년 연속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10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오리올파크 앳 캄든 야스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 방문경기에서 볼티모어 오리올스를 7-3으로 꺾고 146경기(94승 52패) 만에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정상에 올랐다. 다저스는 지난해 콜로라도 로키스와 정규리그 162경기에서 우열을 가리지 못해 단판 승부인 타이 브레이크(163번째 경기)에서 우승을 확정했다.

11일 '한겨레'에 따르면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경기 후 "(지구 우승 확정)을 늦게 하는 것보다 일찍 하는게 낫다. 선수들에게 휴식을 줄 수도 있고 포스트시즌을 대비한 역할 분담을 할 수도 있다." 고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정상에 오른 소감을 밝혔다.

이날 승리로 다저스는 구단 통산 18번째이자 2013년부터 7년 연속 지구 1위로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에 진출했다. 7년 이상 연속 지구 우승을 거둔 팀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1991~2005년 14년 연속), 뉴욕 양키스(1998~2006년 9년 연속)에 이어 다저스가 메이저리그 역대 3번째다.

다저스는 또 올해 양대 리그 6개 지구에서 가장 먼저 우승을 결정지었다. 2016년 부임한 로버츠 감독은 메이저리그 감독 최초로 첫 4시즌 동안 내내 지구 우승을 거둔 감독으로 기록됐다.

류현진은 2013년, 2014년, 2018년에 이어 4번째로 포스트시즌 무대에 오르게 됐다. 류현진은 애초 이 경기에 선발 등판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부진으로 한 차례 로테이션을 거르고 대신 불펜 투수로 컨디션을 조절했다.

지난해 타이 브레이크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선발투수 워커 볼러가 7이닝 동안 삼진을 11개나 잡아내며 4안타 무실점으로 잘 던져 지구 우승 확정에 앞장섰다. 타선은 코리 시거의 연타석 홈런(3점, 2점)과 개빈 렉스의 솔로 아치 등 홈런 3방으로 지구 우승을 자축했다.

류현진을 비롯한 다저스 선수들은 그라운드에서 지구 우승 기념사진을 찍은 뒤 라커룸에서 삼패인을 터뜨리고 맥주를 나눠마시며 축하 파티를 즐겼다.

2019-2020 PGA투어 개막 ... 가을부터 '불꽃 경쟁'

미국프로골프(PGA)투어의 새 시즌이 시작됐다. 2019-2020 시즌 PGA 투어는 지난 12일 웨스트버지니아주 그린브라이어리조트올드하이트TPC(파70·7,286야드)에서 열린 밀리터리트리뷰트앳데그린브라이어(총상금 750만 달러)를 시작으로 내년 8월까지 49개 대회가 열릴 예정으로 지난 시즌보다 이3개 대회가 더 열린다.

9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새 시즌에는 지난 시즌보다 CIMB클래식(총상금 100만 달러)이 없어지고 대신 2시즌 만에 밀리터리트리뷰트와 휴스턴오픈이 복귀했다. 여기에 조조 챔피언십과 버뮤다 챔피언십이 새로 합류했다. 밀리터리트리뷰트의 총상금은 750만 달러이며 조조 챔피언십은 준메이저급 상금 규모인 975만 달러이다. 버뮤다 챔피언십은 같은 기간 열리는 월드골프챔피언십(WGC) HSBC챔피언스에 나가지 못하는 하위권 선수들을 배려해 마련된 만큼 상금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소 수백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다.

PGA투어는 아직 대부분 대회 총상금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올 시즌 총상금 규모가 최소 2,000만 달러 이상으로 확실시된다. 올해 추가된 3개 대회 중 2개 대회 총상금만 1,725만 달러에 이르기 때문이다. 또 제네시스인비테이셔널(총상금 930만 달러)과 WGC HSBC챔피언스(1,050만 달러), 더CJ컵(975만 달러), 세이프웨이오픈(660만 달러), 샌더슨팜스챔피언십(660만 달러) 등이 지난 시즌보다 늘어난 총상금을 공개했다.

이로써 지난 시즌 각종 보너스를 포함해 4억1,360만 달러 규모로 열린 PGA투어의 올 시즌 총상금 규모는 최소 4억 3,000만 달러를 넘길 것이 유력하다.

PGA투어는 인기 종목인 미국프로풋볼(NFL) 개막 등을 피하기 위해 2013년부터 가을이 되기 전 시즌을 끝냈다. 이후 2013~2014시즌을 시작으로 복수의 해에 걸쳐 시즌 일정을 짰다. 이 때문에 시즌 초반으로 분류되는 '가을 시리즈'가 외면 받기 일쑤였다. 소위 '스타급 선수'들은 가족과 여행을 떠나거나 개인 정비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말 그대로 '가을 잔치'가 될 전망이다. 새로 생기거나 다시 열리는 4개 대회가 모두 가을에 배치된 덕분이다. 다음달 17일부터 3주 연속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 연달아 대회가 열리는 '아시안 Swing'도 완성됐다. 선수들에겐 시즌 시작과 함께 상금왕과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다.

이미 세계랭킹 1위인 브룩스 킵카(29, 조던 스피스(24·이상 미국) 등이 CJ컵 출전을 확정했다. 또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4·미국), '차세대 황제' 로리 매길로이(30·북아일랜드)가 조조 챔피언십 출전을 결정한 것만 봐도 온도차를 느낄 수 있다.

PGA투어는 올 시즌부터 경기 진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 컷트 통과 순위 기준을 기존 공동 70위에서 공동 65위로 낮췄다.

체면 구긴 미국 농구 ... 월드컵 역대 최저 성적

농구 월드컵 '디펜딩 챔피언'인 미국이 또 한 번 자존심을 구겼다. 세계농구 랭킹 1위팀이 제대로 망신을 당한 것이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은 전날 중국 둥관의 둥관농구센터에서 열린 2019 국제농구연맹(FIBA) 농구 월드컵 5~8위 순위결정전에서 세르비아에 89-94로 졌다. 이번 대회에서 사상 첫 월드컵 3연패를 노렸던 미국은 전날 8강전에서 프랑스에 패배한 데 이어 또 한 번 고배를 마셨다. 농구 월드컵에서 미국이 4강 안에 들지 못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역대 최저 등수는 2002년 미국 대회에서 기록한 6위였다. 세르비아전 패배로 미국은 7-8위 결정전으로 떨어졌다. 이로써 미국 역대 최저 성적이라는 불명예를 짊어지게 됐다.

미국은 대회 개막 전 로스터 구성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프로농구(NBA) 스타들의 잇따른 불참으로 인해 '역대 최악체 드립팀'이라는 평가를 들었다.

NBA 최고의 명장으로 꼽히는 그레그 포포비치(샌안토니오)와 스티브 커(골든스테이트)를 벤치에 앉히며 막강한 코치진을 구성했지만, 선수들의 무계감은 이전 대표팀과 비교해 많이 떨어졌다. 12명의 대표팀 선수 가운데 2018-2019 시즌 NBA 올스타전에 출전한 선수는 켄바 워커(보스턴)와 크리스 미들턴(밀워키) 2명뿐이었다.

포포비치 감독은 11일 프랑스전에서 패배한 후 "여기에 오기 위해 자신들의 여름을 희생한 12명의 선수들이 이보다 자랑스러울 수 없다."며 "이전에 호흡을 맞춰보지 않았던 선수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뭉쳐 싸웠다. 우리 선수들은 충분히 칭찬받을 자격이 있다. 그들은 훌륭한 일을 해냈고 난 그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려를 샀던 로스터와 관련해 "사람들은 '다른 선수들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야'라고들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번 대회에 참가한 다른 팀들에게 무례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역대 최악의 성적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또 우려를 샀던 로스터와 관련해 "사람들은 '다른 선수들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야'라고들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번 대회에 참가한 다른 팀들에게 무례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역대 최악의 성적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라인댄스 초,중급 반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Allstate
You're in good hands.